이렇게 들었다

참교육

도리에 맞는 행위 이끌자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뜻)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열반경>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 인도하는 이가 없으면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뉘우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된다. <출요경>

▨세 가지 학(學)이 있으니, 셋이란 무엇인가. 소위 계학(戒學) · 심학(心學) · 혜학(慧學)이 그것이다. <문수불경계경>

▨부모는 세 가지로 자식을 경친해야 한다. 첫째로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해야 하며, 둘째로는 착한 행위를 가르쳐 주며, 셋째는 학과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선생경>

일부 초등학교 학예회가 학부모들의 '돈 자랑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인당 3~5분에 불과한 장기자랑에서 제 자식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이 너나없이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최근 학예발표회에서 발레솜씨를 선보이기 위해 들인 돈은 의상비와 화장 비용 등을 합쳐 100만원이 넘는다. 어떤 초등학생은 150만원을 내고 드라마 '여인천하'에 나오는 왕비의 대례머리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학예회 발표를 위해 적지 않은 레슨비를 들여가며 몇 달씩 바이올린 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는 발레, 오케스트라, 현대무용, 성악 등 소위 '귀족 예능' 위주로 학예회 프로그램을 짜고, 화려한 장기를 선보인 학생들에게 시상까지 해 학부모들의 그릇된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다.

학예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갈고 닦은 장기를 선보이는 자리다. 최소한의 소품은 필요하겠지만 호화로워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와 학교는 '비싼 것=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만큼 '돈 자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졸부문화'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졸부 문화는 사치에만 그치지 않고, 제 자식에게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가치관까지 심어주고 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법구경〉에 "하잘 것 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게 해서는 안된다. 방탕과 사치를 배워 탐욕을 생기게 해서도 안된다. 도리에 맞는 행위를 익히고 배우되,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곧은 정신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적인 교육만 시키고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의 위험만 키우는 꼴이다. 부모들부터 정신차려야 하겠다.

한명우 기자

정치와 종교 유착의 사슬 끊자

불자 세상보기

선거철 다가왔는지 정치인들 종교행사 '기웃'
종교인들 '자존심' 지켜야



정진홍
서울대 교수
종교학과

사람살이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욕심 따라, 꿈 따라, 사는 태도들이 다릅니다. 자연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는 삶의 내용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종교 등은 삶을 분별하여 일컫는 이름들입니다. 물론 그 영역들은 다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보면 '잘 사는 지혜'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서 다르게 일컬어진 다른 삶과 조화롭게 사는 일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나의 삶도 남의 삶도 엉망이 됩니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종교는 근원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따라서 둘은 사뭇 다릅니다. 둘은 각기 자기 자리를 지켜 제 몫을 해야 사람살이 전체를 위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와 정치가 딱 끊어진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녀야 제대로 현실에 대한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종교적'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또 종교도 현실에 대한 공감을 전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향하는 근본적인 의미나 가치도 공허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차단하는 것은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보완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러한 보완보다 서로 이용하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정치는 자신을 종교를 통해 정당화하려 합니다. 자신의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할 때면 그러한 태도는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정치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를 확산하려 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종교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라 합니다. 아예 '정치의 종교화 현상'이나 '종교의 정치화 현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도 종교이기를 그만두고, 정치도 정치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이념을 버린 맹목적인 권력의 추구'나 '성찰의 준거를 잃은 권력의 전횡'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사회 구성체들이 각기 다른 몫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선거 때가 가까웠는지 종교계를 찾아 웃음을 파는 정치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정치인들을 끼고 커다란 상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도 없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릇 종교와 정치는 어느 쪽에도 쏠리지 말고 서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간의 유착이나 한쪽의 지배는 모두에게 불행합니다. 오늘의 문화 속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정치 권력의 전횡이나 종교 권력의 독선이 새로운 시대의 전쟁의 씨앗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종교인의 사명이고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보다 종교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일이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종교 NGO네트워크 발족기념 심포지엄

한국종교가 실천해야 할 경제윤리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세 단체가 '개혁을 위한 종교NGO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5일 서울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이 시대 한국종교가 실천해야 할 경제윤리'를 주제로 발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세 종교 단체 발제자들은 하나같이 재정 투명화를 통해 종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상품화 경계해야"



강인철 〈한신대 교수 · 종교사회학〉

한국 사회에 있어서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종교의 상품화'와 '종교의 산업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종교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근대 사회의 '종교다원주의'는 한국에서도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종교다원주의'는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종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공존하는 것이다. 그들이 경쟁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종교의 상품화'와 '종교의 산업화' 현상이 점점 진행될 것이다.

한편 종교의 상품화와 산업화는 종교의 세속화(종교의 자본주의화)와 자본의 물신화(자본주의의 종교화) 현상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와 종교가 혼합되면서 종교의 '기복주의', '물신주의'적 성격은 강화된다. 종교적 가치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종교의 상품화가 더 조직화되고 진전될 때, 종교는 하나의 산업적 형태를 갖게 된다.

이때 문제는 바로 종교 재원의 사유화와 비공개, 불투명성에 있다. 이중적인 장부 작성, 수익의 고의적인 누락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종교가 맹목적인 성장주의, 물량주의를 추구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 때 성직자들은 CEO로 전락할 것이고, 신자들은 종교상품을 구매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비영리단체로 분류돼, 세금을 면제 받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늘어난다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사찰 재정투명화 서둘자"



윤남진 〈불교재가연대 기획실장〉

현재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보수정비, 국립공원 입장료, 재가불자의 시주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예산공개원칙을 밝힌 바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 투명화를 위한 청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청규 속에는 출가공동체 구성원의 무소유, 탁발, 평등한 분배 등이 반영돼야 한다. 또한 사찰의 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사회회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조계종은 1994년 개혁입법을 통해 중앙차원에서 예산회계법을 정비해 '재정공개원칙'을 적시했고, 사찰에 대해서는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제정해 사중의 출 · 재가가 공히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찰의 예 · 결산, 불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시행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중앙차원의 재정 투명화는 어느 정도 제고되었으나, 사찰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불교공동체의 경제활동 혹은 재정 투명성 및 청렴성에 관해 사회적 불신은 매우 높다. 이는 출가자공동체 내부의 자기쇄신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노력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경제활동 및 재정운영에 관한 청규를 논의하고 이를 제정하여 공표하고 대중적으로 평가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

"경제적 나눔의 공동체로"



김선실 〈천주교 정의연합 교회쇄신위원장〉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닌 영적인 문제다. 교회가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종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교회는 가난해야 한다.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가난한 이들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자발적 가난은 결코 정신과 마음만의 가난이 아니라 몸의 가난, 재물의 가난이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다. 가톨릭 수도회는 금권과 정권에 결탁하는 것을 금했고, 근대에는 교황이 직접 여러 가지 훈시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가난한 교회와 경제적 나눔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가 존재하는 본질중의 하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확충을 억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물질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호화로운 건물의 신축과 불필요한 개축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교회세습은 부의 대물림"



최형묵 〈제3시대 그리스도硏 상임대표〉

한국교회 현실에서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재정규모나 운용이 투명하지 않아 한국교회 내의 금권선거와 교회 헌금의 주식투자 전용 등의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

모든 신도들이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회 내부의 감시 및 자정기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단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교회세습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간에서 문제 삼는 교회세습은 청빈한 목회자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의 세습이다. 이것은 재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욕망일 뿐이다.

교회 헌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헌금이 종교 본연의 목적에 사용된다면 그 비과세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성직자 개인의 수입으로 전환됐다면 납세가 당연하다. 이를 위한 엄밀한 과세 표준의 설립돼야 할 것이다.

참 나 체 험 chamna chehum

하루가 부족합니다.

불교의 참나, 주인공,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선도의 상제, 동학의 한울님
등으로 불리는 참나체험

하루면 충분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먼저 공부한 분들과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한마음의 바다에서 그대의 업장을 녹여
참나를 발현케 하므로….

그대는 수많은 전생을 통해 수행 해 왔으므로
참나가 영겁인 진리의 바다에서
하루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하루가 부족합니다

수행문의
대전본원 : 042)533-0569
서울 강남지원 : 02)543-2849
신촌지원 : 02)392-5165

*영가의 장애
원인모를 질병
신기가 있는 분
일이 잘 안되는 분
짧은 시간에
극복이 가능합니다

생활참선 제 5의 수행법

참 나 체 험 www.chamna.net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화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친가와 외가의 조상님들
영혼을 스스로 천도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분리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 공개강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예약접수)
● 정규수련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화요일 오후 3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금요일 오후 3시
● 특별수련 :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절
●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 (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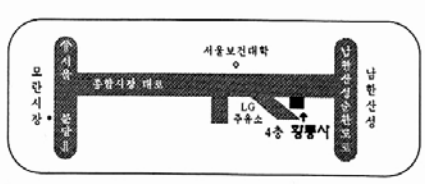
참마음 수련원 心田堂 (구대광사)

영가 천도재(49재) 안내



불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사정상 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지 못한 분들의 동참을 원합니다.
사업, 상업, 취업 각기 소원성취와 질병, 재난등의 해소를 위한 조상, 일가, 친척들의 천도재 입니다.
특히나 수자 영가(낙태아) 특별 천도재를 발원하니 산부인과 집도의사 그가족 해당 어머니들의 동참 원합니다. 성불 합시다.

● 입 재 : 2001년 양력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시예불 ~
● 결 재 : 2001년 12월 22일 회향(동지날)
영가 1인당 5만원
수자영가 1인당 3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666-21-0285-909
예금주 지덕용



황 룡 사 주지 금해

중흥사 학술 세미나 연기 공고

오는 11월17일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개최 예정이던 학술세미나는
사정상 내년으로 연기 되었기에
이에 공고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 의뢰한 논문을 집필해 주시고,
논평을 수락해 주신 교수님들께
지상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1월7일
북한산 중흥사
주지 영도각 합장